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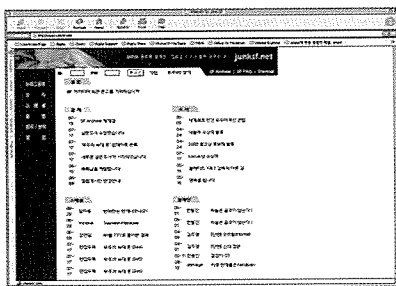
놀랍고 흥미진진... 과학 대중화에 앞장

'블레이드 러너, 터미네이터, 마이너리티 리포트, 매트릭스' 이 영화들은 보지 않은 사람을 끄는게 더 빠른 정도로 흥행 대작들이다. 그런데 이 영화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바로 'SF(Science Fiction)' 라는 장르다.

과학적인 이론과 미래의 전망을 허구의 이야기로 결합했다는 정의를 가진 SF는 소설에서부터 시작해 영화, 애니메이션 등 각종 예술분야를 넘나들면서 어렵고 복잡한 과학지식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전달하고 있다. 교과서 속의 물리나 화학 공식은 어렵지만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 보는 과학지식은 놀랍도록 흥미롭다. 정통한 과학자들이 보기에 간혹 틀리거나 어설픈 면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중을 과학으로 유인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게 있을까. 과학의 대중화라는 SF의 공과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SF는 또 추리소설과 함께 무더위와 짜증으로 지치는 여름밤을 후딱 넘겨버릴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친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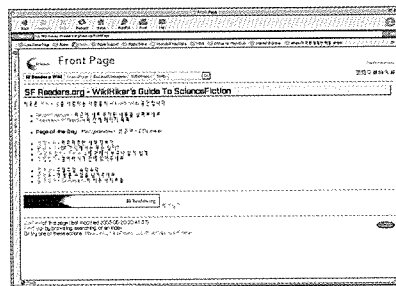
이런 명성답게 SF는 인터넷에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보통 SF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형성되는 SF관련 인터넷 사이트중 가장 대표적인 곳은 정크SF넷(www.junksf.net). SF 마니아들이 SF정보의 총본산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게시판이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광고 등에 나타난 SF를 비평하는 칼럼도 재미있다. SF작가 데이터베이스와 백



과사전도 검색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SF에 대한 전문지식을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도움이 될 만하다. 각종 SF관련 소식도 자주 업데이트된다.

위키위키웹(www.sfreaders.org)이라는 곳도 SF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과학소설의 용어풀이 등 SF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방대하게 보유하고 있다.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로봇 공학 3원칙 제1조, 로봇은 인간

에게 위해를 가하면 안 되며 위험을 간과함으로써 인간에게 위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

제2조,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단 명령이 제1조에 위반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로봇은 제1조 및 제2조에 위반할 우려가 없는 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와 같은게 대표적인 정보.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로봇을 보았지만 이런 로봇 공학 원칙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몇 되지 않을 듯싶다. 몇몇 영화 속에서 로봇이 인간에게 반항하는 것이 갈등의 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보다. 이외에 냉동수면, 인간복제 등 SF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궁금해했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사이트는 특히 국내에서 출간된 SF 신간서적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새 책 소식은 거의 매달 정리되며 관련 인터넷 서점과 바로 링크돼 있어 편리하다. 휴가 때 가져갈 SF소설을 찾고 있다면 이 사이트를 이용해 보는게

<SF 사이트>

좋을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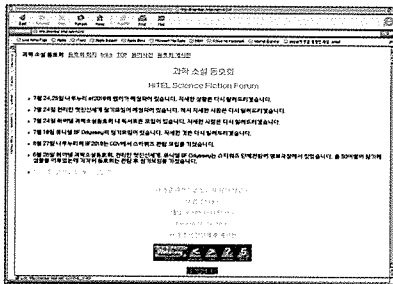
내일 SF ENCYCLOPEDIA(user.chollian.net/~sigma/)



도 SF용어 설명과 작품 소개가 충실하다. 특히 가나다, ABC 순서로 정리된 용어 설명이 눈에 띄며 SF작품 목록도 한국, 일본,

영미권으로 나누어 정리돼 있어 유용하다. SF 입문자들에게는 이 사이트에 소개된 SF작가 목록이 큰 도움이 될 듯하다.

하이텔과학소설동호회(member.hitel.net/~k2sf/)도 재미있는 사이트다. SF관련 소식과 용어사전, 해외 SF물을 번역한 정보가 유용하



다. 프랑켄슈타인의 작가인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출생(1797년)에서부터 아이작 아시모프의 '흰눈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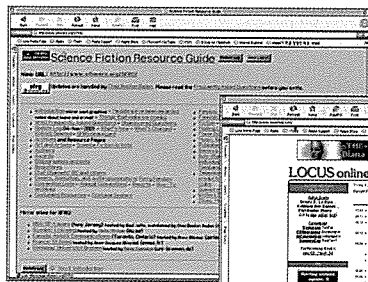
이로 달리는 기분'의 국내 출간(1996년)까지 정리된 SF연대기가 특히 흥미를 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사이트다.

20곳이 넘는 해외 SF링크 사이트도 유용할 듯하다. 500권이 넘는 책을 넘기며 가장 유명한 SF작가로 남은 소련 출신 아시모프의 팬페이지도 여러 곳 있다. 이민수 씨가 운영하는 홈페이지(my.netian.com/~azazel/)는 특히 아시모프에 관한 충실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시모프의 작품 중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글을 개인적으로 번역해 올려놓은 것으로 어떤 글은 2년에 걸쳐 번역한 것도 있다. 홈페이지 운영자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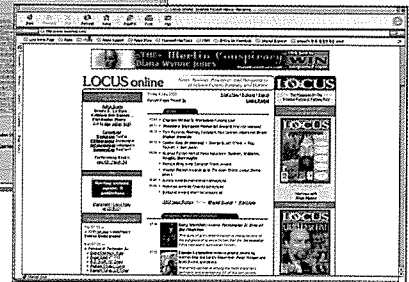
이외에 지금은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지만 월간 SF 웹진(home.bawi.org/~sfwebzine/)이 1999년 10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축적한 정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SF에 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글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이다.

해외 정보가 궁금하다면 'www.sflovers.org/SFRG' 나 'scifi.com/sfw'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매주 발행되는 SF 소



식지 'scifi.com/sfw'는 국내 SF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유명하다고 한다.



해외 사이트 중에는 유명 SF 잡지의 온라인 버전도 여러 곳 있다. SF 리뷰 잡지인 로커스 온라인(LOCUS ONLINE www.locusmag.com)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SF사이트로 불리는 The SF Site(sfsite.com). 방대한 SF 리뷰와 인터뷰 기사를 수록하고 있으며 SF 관련 사이트 및 작가 홈페이지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SF 입문기를 지나 심화학습을 원한다면 들러 볼 만하다. SF

글_김인진 전자신문 기자 ijin@etnews.co.kr